

우리말 어휘의 시간을 읽다

판전

오늘의 뜻에서 옛 문헌까지

판전이라는 단어의 역사

우리가 쓰고 있는 단어

판전

완성된 이름

판전

출처: 국립국어원 우리말어휘역사사전

판전

한눈에 보는 기록

뜻

어떤 일을 하는 데 그 일과는 전혀 관계없는 일이나 행동.

요약 연대표

표기	19세기	20세기	현재
판전	○	○	○
판전	-	○	○
췌전	-	○	-

history.wordrow.kr wordrow

오늘의 뜻

어떤 일을 하는 데 그 일과는 전혀 관계없는 일이나 행동.

문헌의 첫 기록

19세기

수록 용례

4개

수록 내용

뜻 · 표기 · 문헌

사전의 뜻풀이, 옛 표기와 문헌 용례를 함께 읽는 자료입니다.
모든 뜻과 세기의 기록을 수록했습니다.
문헌 속 한자 2자의 뜻·음과 숫자 획순을 부록에 담았습니다.

☞ 우리가 알고있는 '판전'의 뜻

국어사전 뜻풀이

사전에 수록된 오늘날의 뜻입니다.

어떤 일을 하는 데 그 일과는 전혀 관계없는 일이나 행동.

☞ 판전의 표기 연대표

표기의 변화와 공존

판전의 표기를 세기별로 모았습니다. 같은 세기에 여러 표기가 함께 쓰이기도 했습니다. 연대표는 모든 문헌 뜻의 기록을 모으며, 연결된 용례는 문헌 영역에 표시된 뜻을 기준으로 읽습니다.

표기 · 근거	15세기	16세기	17세기	18세기	19세기	20세기
판전 사전 표기 요약	—	—	—	—	●→	●→
판전 사전 표기 요약	—	—	—	—	—	●→
썬전 문헌 수록 표기	—	—	—	—	—	●→

연대표의 근거와 읽는 법

- **사전 표기 요약**: 사전의 표기 변화 요약입니다.
- **문헌 수록 표기**: 세기별 문헌에 함께 실린 표기를 더한 것입니다.
- 점이 없는 시기에도 이 말이 쓰였을 수 있습니다. 표시된 세기는 자료에 기록이 남은 시기로, 낱말이 생기거나 사라진 때와는 구분됩니다.
- 점은 문헌 영역에 표시된 뜻의 해당 세기 용례로 연결됩니다.

시대별 주요 표기 모아보기 3종

사전의 표기 요약과 문헌 수록 표기를 모았습니다. ‘현재’는 오늘의 표제어이며 역사 세기와 구분합니다.

- 판전
19세기20세기
- 판전
20세기현재
- 썬전
20세기

↳ 단전의 어원과 변화

이 말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사전의 어원·변화 설명

소제목은 읽기를 위한 편집 안내

📖 옛 표기와 등장 시기

‘땀전’의 옛말인 ‘싼전’은 19세기부터 나타난다.

↳ 말의 구성과 어원

‘싼전’은 땀을 뜻하는 ‘싼’과 가게의 의미인 한자어 ‘廛(전)’을 한글로 표기한 ‘전’이 결합한 것이다.

↘ 소리와 발음의 특징

근대 국어 시기에 ‘ㅅ, ㅈ, ㅊ’ 아래에서 이중 모음 ‘ㅑ, ㅕ, ㅛ, ㅜ’가 ‘ㅏ, ㅓ, ㅗ, ㅜ’로 단모음화하는 현상과 20세기 이후 ‘ㅕ’을 ‘ㅛ’으로 적게 되는 경향에 따라 20세기에 ‘땀전’이 나타나면서 현재까지 이어진다.

📖 문헌 속의 단전

전체 용례 4개

모든 뜻과 세기의 문헌 용례입니다. 원문, 현대어 풀이와 출처를 함께 확인하세요.

19세기 땀전 용례 1개

이 문헌 묶음의 표기 전체 보기

땀전

출처 1864 남원고사 3:24ㄱ

용례 01

66 문헌 용례

네 나히 몇 술이니 춘향이 동문서답 싹전으로 뒤답후디.

㉮ 현대어 풀이

네 나이 몇 살이니? 춘향이 동문서답 싹전으로 대답하기를.

20세기 싹전, 싹전, 싹전 용례 3개

이 문헌 묶음의 표기 전체 보기

싹전, 싹전, 싹전

출처 1912 흥도화 하:466

용례 02

66 문헌 용례

짐짓 몰으논 테후고 칠월을 대후야 싹전으로 슈작을 후던 터이라.

㉮ 현대어 풀이

짐짓 모르는 체하고 칠월을 대하여 싹전으로 수작을 하던 터이다.

출처 1912 황금탑 80

용례 03

66 문헌 용례

더 사롬들을 먼저 드려보니여 싹전으로 슈작을 후야.

㉮ 현대어 풀이

저 사람들을 먼저 들여보내고 싹전으로 수작을 하여.

출처 1940 수정증보 조선어사전

용례 04

66 문헌 용례

딴소리 名 본뜻에 어그러지는 말 본뜻과 다른 말. 딴말. 딴전. 생소리.

㉮ 이 용례에는 별도의 현대어 풀이가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 세기 분류·표기·문헌명·현대어 풀이는 사전 자료 그대로 수록했습니다.
- 문헌의 연대와 세기 분류가 다른 경우에도 사전에 수록된 구분을 따릅니다.
- 용례 수는 이 사전에 수록된 예문의 수입니다. 당시의 실제 사용 빈도와 구분해 읽어 주세요.

딴전에 관한 주석

진갑곤(2002)에서는 ‘딴전’은 ‘다른 전(塵: 가게 전)’에서 온 말이라고 하였다. 옛날에는 물건을 늘어놓고 파는 가게를 전(塵)이라 했는데, 딴전을 본다는 것은 이미 벌여놓은 자기 장사가 있는데도 남의 장사를 봐 준다거나, 다른 곳에 또 다른 장사를 펼쳐 놓는 것을 말한다고 하였다.

딴전의 참고문헌

사전 편찬 참고자료

- 진갑곤 2002 한자어와 관계 있는 우리말의 어원 새국어생활12(2)

자료 출처

이 자료는 ‘단어의 역사’의 낱말 페이지에 수록된 사전 자료를 바탕으로 구성했습니다. 원문과 현대어 풀이, 주석과 문헌명은 원자료의 표기를 따릅니다.

용례의 수는 이 자료에 수록된 예문의 수이며, 당시의 실제 사용 빈도를 뜻하지 않습니다.

history.wordrow.kr · [딴전의 뜻과 역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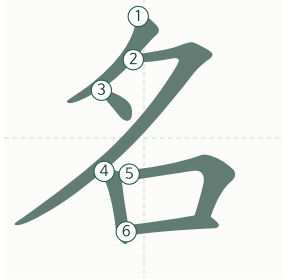
한자 한눈에 보기

뜻·설명·문헌·함께 읽을거리에 나온 한자를 중복 없이 모았습니다. 획순은 한 글자의 숫자로만 표시합니다.

名

뜻·음 이름 명

총 6획 · 부수 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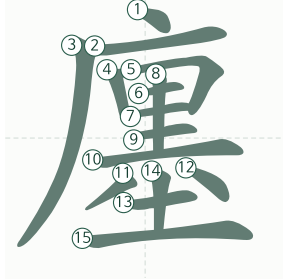



hanja.wordrow.kr/한자/名/

塵

뜻·음 가게 전

총 15획 · 부수 广

hanja.wordrow.kr/한자/塵/